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230만명 서명

유치위원회, 접수 마감 앞두고 정부·국회에 호소문 전달 100여 단체 참여...“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관계단체 회원 75명이 참석해 범국민 서명 230만명 돌파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을 촉구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유치위원회에는 광주·전남·전북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대학 총학생회, 재경향우회, 지역언론협회 등 각계각층 100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돼 230만명을 넘어섬에, 국토 균형 발전과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유치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600만 호남인의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범국민 서명이 230만 명을 돌파했다”며 “호남이 지금의 위축된 흐름을 돌려세우지 못하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가 R&D사업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의 연구역량이 개선돼야 한다”며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 전남의 에너지·바이오산업, 광주의 AI·자동차산업, 전북의 탄소·농생명산업 등 호남권 혁신산업이 크게 도약해 호남이 국가 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충청·영남 편

중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광가속기를 호남권에 구축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민원(광주대 교수)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가 과학경쟁력의 한 차원 높은 도약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다”며 “범국민 서명운동 230만명 돌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염원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하고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움직임을 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 3월 이후 대학 총장, 시장·군수의 지지성명과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표로 유치 열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전남 ‘청년의 목소리’를 비롯 호남권 12개 청년단체 대표도 무안청년센터에서 차세대 기술개발의 핵심기반인 ‘다목

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양영환 청년의 목소리 대표와 손윤관 광주지주 청년회의소 회장, 정양용 전북4-H연합회 회장, 김호영 전남4-H연합회 회장, 이창재 (사)전라남도청년CEO협회 회장, 김은광 (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협의회 회장, 김한나 빛나는청춘 대표, 신나라 청년이을 대표, 김형식 무안군 청년협의체 대표, 김옥선 무안지주 청년회의소 회장, 박빈 무안군 4-H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2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착수를 목표로 이달 29일까지 전국 사도를 대상으로 유치계획서를 받고, 발표 및 현장 평가를 거쳐 5월 7일까지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19 피해 농가 살리고 학생도 챙겨요” 전남도 첫 시행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전국 확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돼 사용되지 못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으로 학생 가정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 농가를 살리고 학생을 챙기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 등 8개 시도와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코로나 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데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을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시행 광역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다.

당정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상급식 예산 271억원 내에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1인당 3만원 가량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보면, 1차 지원 대상인 364만명에게 총 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546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1회 공급당 1639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꾸러미 공급 방식은 현물 배송이나 온라인 쿠폰,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전남은 당정의 방침 수립 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16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들어간 바 있다. 대상은 도내 26만명의 학생 가정이다.

전남도는 전남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우선 104억원을 긴급 투입해 집행하고 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2만4000원·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나주)유치 '230만명 서명 돌파'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눈 앞...전남도 TF팀 가동

지역별 불균형 배치 집중 부각...유치 논리·활동 방향성 점검

전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4·15 총선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전경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윤병태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꾸렸다.

민주당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침과 총선 기간 광주를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이 거의 끝났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언급에 미리 정부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광주시와의 공동 TF가

인한 지역별 공공기관 총량(기관 수) 차이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영남권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공공기관 규모를 주요 유치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획재정부 지정 전국 공공기관은 모두 363개로 수도권 156개(43%), 충청권 86개(23%), 영남권 74개(20%), 호남권 29개(8%), 강원도 13개(4%), 제주도 5개(1%)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청권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해진 점도 주요 변수로 보고 살피기로 했다.

TF는 또 향후 회의에선 전남도가 유치 희망 공공기관 목록에 올려둔 23개 기관의 적절성 및 개별 유치 전략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1차 이전 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 15개와 지역

비교 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8개 기관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잠정 결정했다.

전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23개 공공기관은 ▲에너지 분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 ▲농생명 분야 식품안전정보원 등 2개 기관 ▲문화예술 분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5개 기관 ▲정보통신 분야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해양수산 분야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 ▲환경 분야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이다.

다만 전남도의 공공기관 유치 목표는 대상기관-기관 배정 방법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8년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은 줄곧 “정부 출자·투자회사를 포함하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00여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예고-전남도청 지방도 개통... ‘접근성’ 개선

27일 국도1호선 무안 소재 전남예고에서 전남도청을 잇는 지방도 825호선 1단계 도로가 개통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통구간은 지난 2015년 총 연장 3.6km 중 국도1호선에서 무안 소재 삼향초등학교 간 1.1km 구간에 79억원을 투입해 착공을 시작했다. 시공회사의 사업포기와 재선정 과정을 거치며 4년 7개월 만에 완공됐다.

그동안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으나, 이번 도로 직선화로 도민들이 도청 등 남악신도시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전남예고와 삼향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2단계인 삼향초등학교에서 전남도청까지 2.5km 구간은 178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전 구간이 개통되면 목포 시내를 통해 접근할 때보다 거리는 2km, 시간은 5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825호선 1단계 구간이 준공됐다”며 “남악신도시를 이용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2단계 공사도 계획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19 100일 광주·전남 선방

▶1면에서 계속

◇전남도, 가장 낮은 발생률 기록-전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비율도 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 20.71명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확진자 수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13명)를 제외하면 가장 적다. 코로나19

종식 이전이지만 전남도의 방역 활동이 적절하게 추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남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2.6%(전국 평균은 15.5%)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단 한명의 사망자가 없다는 점도 방역성과로 꼽힌다.

전남도 김성우 건강증진과장은 “전남도 공무원, 의사·간호사·공중보건관의 등 의료진 모두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 19 종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금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일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교차 또는 관인에게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교차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개별명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작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개장: 전남 파주군 용평면 용곡리 산 34-11
2. 분묘개장: 1기
3. 개장시유: 재산인 행사
4. 개장방법
5. 유언분묘: 연교차 합의후 개장처리
6.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개별명에 따라 임의개장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연장기간: 행정사사무소(연교차)를 방문하여 940-27
9. 연장기간: 화장 후 10일
10. 신고 처: 인근영(010-8612-3904)
11. 신고서 구비사항: 연교차 임의증명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12. 기타사항: 상기 분묘내에 석물이 불법행위에 유관하여 유가 발원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4월 28일
공고인 임근영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금1,200,000,000원 중 금3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8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35,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8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 및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일로부터 1월내에 본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 및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4월 28일
사건진설 주식회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6길 20
대표이사 박인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문태영(280109-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화정로179번길 27(화정동)

피상속인 망 문태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433호로 신청하여 2020년 4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4월 28일

- 상속인: 문용주(510815-XXXXXX)
- 수필시 장안구 수정로370번길 17-11 에이동 402(영화동, 정훈빌라)
- 신고기간: 2020. 4. 28. ~ 2020. 7. 7.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문용주의 주소

산행안내

5월2일(토)
▲광주금당산악회 5월2일(토) 여수 천혜의 섬 연도 소리로 등백패트 팔봉산 트래킹, 분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영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5월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5월6일(수) 전남 장흥사자산 - 보성원림산 산행, 배운로 타리타리아뱅크앞 07:30, 교직원공회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5월13일(수)
▲광주청룡산악회 5월13일(수) 전북 부안 우금산 산행, 배운로타리타리아뱅크앞 07:30, 교직원공회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